

올해(2003년)는 세계최초로 경제학과가 대학에 독립된 학과로서 개설된 지 꼭 백 년이 되는 해이다. 1209년 세워졌다고 전하여지는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처음으로 1903년 경제정치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and Politics가 알프레드 마셜 Alfred Marshall (1842~1924)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개교 당시 케임브리지는 전통적으로 대학에서 이수되었던 라틴어, 수사학 그리고 논리학 세 과목을 가르쳤고, 4년 동안 이 과목들을 이수하면 문학사 학위가 주어졌으며 수학, 기하학, 음악 그리고 천문학을 3년 동안 이수하면 문학석사학위가 주어졌다. 신학과 의학은 이런 학위를 끝낸 뒤에 수학할 수 있었다.

1502년 헨리 7세의 어머니였던 마가레트 보포드 Margaret Beauford에 의하여 최초로 신학 교수직 professorship이 신설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문분야에서 교수직이 생기게 되었다. 1570년에 이르러서야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하여 대학이 법인으로서의 독립적인 인격을 부여받았으며 그 다음 해인 1571년에서야 비로소 영국의회에 의하여 법인격이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1776년 아담 스미스 Adam Smith (1723~1790)가 『국부론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Wealth of Nations*』을 간행한 것을 기점으로 경제학계는 그 해가 바로 경제학이 시작된 해로 상징적으로 삼고 있다. 경제학의 명칭도 정치산술학, 정치경제학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Alfred Marshall에 의하여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흔히 가난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여 '우울한 학문'으로 불리기도 하는 경제학은 인간의 물질적 행복을 연구하는 극히 세속적인 과학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신학, 철학, 논리학, 수학, 물리학과 같은 학문에 비하여 천시되어 오다가 불과 백 년 전에 정치학과 더불어 독립된 학과를 갖게 되었다. 학문의 발달과정의 성격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의 은사, 선학자들도 한국 최초로 1917년 당시 연희전문학교에 상과를 창설함으로써 경제학 교육을 시작하다가 1946년 공식적으로 경제학과가 분리되어 개설되었다.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식민지에서 경제학과를 두지 않는 방침 때문에 식민지 당시의 경성제국대학도 법문학부에서 경제학 강의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경제학과는 두지 않았다.

우리 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상과에서 경제학을 강의하셨던 백남운, 이순탁, 김도연 등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첫 세대 경제학자들로서,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학이 여기까지 발전한 데 기여한 이분들의 공적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돌이켜보면 우리 대학교에 가격론과 국민소득론이 강의과목으로 독립적으로 개설되었다가 다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것도 불과 40년이 되지 않았다.

이른바 경영경제학이 직업학문인 경영학으로 바뀌어 독립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금융공학이라든지 산업공학과 같은 새로운 분야도 경제학 탄생 백 년이 넘기 전에 탄생된 학문분야이기도 하다. 경제학은 이와 같은 새로운 학문을 백 년 사이에 새로이 후손으로 남게 된 것이다. 경제학이라는 줄기에서 많은 새 가지가 새로 솟아나면서 경제학은 무성한 잎과 꽃을 피워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윤 석 범